

# “폭설 불편에 무거운 책임감... 재발 방지하라”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우범기 전주시장, 적극적 대응·전반적 매뉴얼 점검 주문

“전주시민들이 겪은 큰 불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민들의 안전체계 미숙에 따른 사고와 함께 향후 ‘안전관리 체계 및 폭설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 및 재난안전 시스템 매뉴얼’ 특별 점검을 주문했다.

우 시장은 지난 17일 폭설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시민을 향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우 시장은 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데 만전을 다하고, 향후 추가 폭설시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기에 우 시장은 지난 17일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간선·지선도로를 찾아 제설작업을 마무리해달라. 동별로 제설 취약지역을 파악, 제설작업을 즉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우 시장은 “이번 폭설에 따른 시 곳곳의 위기관리 허점 먼저 찾아달라. 단계별 위기 상황에 대한 시청 공무원의 비상 근무 체계와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위기 상황 발생시

컨트롤 타워 문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폭설 대응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포함해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7일과 같은 시민의 불편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전주지역에는 8.5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도로가 결빙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총 260억원 부과·고지

전주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60억 원(15만2856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됐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 등록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경우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 은행 자동입출금기

(CD/ATM)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강제원 전주시 세정과정은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동차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 치매 걱정 없는 전주 만들기 ‘총력’

## ‘2023년 치매사업 확대 보고회’ 개최... 치매환자 관리·예방 사업 확대 시행

전주시는 내년부터 모든 시민 대상으로 치매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치매안심 송영 교통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 등 치매환자 관리와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치매사업 협약의료기관 및 관계자,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치매

사업 확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시작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과 확대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시는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 시민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조호물품 지원사업 확대,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확대 등 기존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치매 관련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치매 안심 송영 교통서비스, 동네방네 찾아가는 치매예방사업, 인공지능(AI)인형 활용 치매예방 돌봄서비스 등도 추진한다.

여기에 치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가칭)행복누리마을’을 조성하고, 치매안심센터도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치매안심사업 협약의료기관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2022년 치매사업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진행, 이날진 전주시립요양병원 원장의 ‘건강한 백세인생’을 주제로 강연도 이어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꾸준히 치매지원사업을 추진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전주 시민이 치매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치매 걱정 없는 전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치매사업 협약의료기관 및 관계자,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치매사업 확대 보고회’를 개최했다.(감사패 수여 모습)

## 엄익준 완산구청장, 동절기 대비 청소민원 현장행정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동절기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청소민원 처리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지난 16일, 삼천동 완산 차고지를 방문해 올해 말 준공예정인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및 동절기 대비 청소차량 안전사항을 점검했다. 또 그는 완산구

청소를 책임지는 100명의 환경관리원의 겨울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완산구는, 동절기 신속한 청소민원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 추진 및 주민 목소리 반영한 ‘시민 맞춤형 공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마련됐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겨울철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청소행정 및 공원관리를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산구는 19개 동 구역별로 총 324명의 청소인력과 132대의 청소 차량을 배치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영화의거리 등 청소취약지역 중점관리구역 7개소에 대해 1년 365일 상시 기동처리반을 운영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겨울철 야영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관내 야영장 6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야영장 소방안전대책을 내년 1월 6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텐트 내 취사·난방 등 화기취급으로 화재·질식 등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야영장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재발생 시 야영장 관리인의 신속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야영장 6곳을 대상으로 ‘소화기, 감지기’ 등 안전 시설 구비를 확인하고,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기준 충족을 점검하는 등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용 칼 등 화재에

방 안전용품 세트 대여 운영 권고, 야영장 관리자 및 방문 이용자 대상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야영장 내 구역별 피난안내도 작성, 비치 여부 확인,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근접배치 가능여부 확인 등을 실시한다.

겨울철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를 설치하고, 보일러실 주변에는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설치(천장에서 0.3m 이하)하는 것이 좋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텐트 내에서 취사 및 화기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한 야영을 위해서는 텐트나 글램핑 내에서는 취사 및 화기취급을 반드시 금지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계속된 한파 소방시설 동파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최근 매서운 한파의 영향으로 소방시설 등의 동파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파의 지속으로 소방시설이 동파될 경우 화재 발생 초기 대응 실패에 따른 다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은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특히,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은 물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로 한파가 지속될 경우 동파로 인한 파손이 우려된다. 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시설도 낮은 기온에서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유지 관리가 요구된다.

소방서에서 전하는 소방시설 관리



방법으로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배관 노출로 동파 우려가 있는 설비는 배관 보온 조치, 지상층에 있는 펌프실 보온 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정기적인 작동점검’을 확인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등이 있다.

/김영태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